



무주군이 19일 (사)포럼 문화와 도서관(이하 포럼)이 주관한 제1회 좋은 도서관 공약상을 수상했다.

무주, 좋은 도서관 공약상 수상

지역 맞춤형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내용 호평

무주군이 19일 (사)포럼 문화와 도서관(이하 포럼)이 주관한 제1회 좋은 도서관 공약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포럼이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무주군은 지역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역맞춤형 도서관 공약으로 호평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문화·예술·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2019~2022)"을 민선 7기 5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도서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설

계·시공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영유아, 청소년, 학부모, 성인 등 이용자에게 맞는 공간을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영유아도서관과 테마놀이터, 키즈카페 등 영유아 공공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학습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적을 확충해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과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 영유아들을 위한 무주형 북스타트 사업 시행과 각 읍·면 무

주형 기적의 놀이터 &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영과의 시너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제1회 좋은 도서관 공약상이라는 의미있고 값진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라며 "군민들의 문화활동 지원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 도서관이 제대로 건립돼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포럼 문화와 도서관(이사장 서해란)은 도서관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에 발족·운영되고 있는 단체로 그동안 도서관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공역을 수행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매개곤충 공급체계 구축

국비 3억원 들여 농기센터 내 수정별 인공증식센터 준공

장수군이 매개곤충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품질 과수 정형과생산과 노동력 절감에 대응하고 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수정별 인공증식센터에서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공무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개곤충 공급체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장수 수정별 인공증식 보급사업 설명과 보급과정, 수정별 방사 과정이 진행됐다. 장수 수정별(뒤영벌)은 크기가 크고 활동적이며 꽃가루 수정 능력이 탁월해 꿀벌로 수정시키기 어려운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식물에서 수정 능력이 우수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흐리거나 추운 날씨에도 활동이 활발해 노지 과수 수정에도 매우 적합하다. 무엇보다 뒤영벌에 의해 수정된 과일은 생산성이 좋고 당도와 신도가 증가하는 등 맛과 품질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에 장수군은 올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농업기술센터 내 수정별 인공증식센터를 준공했으며 매년 수정별을 생산해 시설재배 및 노지과수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군에서 직접 생산해 보급하는 합엔! 장수 수정별 공급체계 마련과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이항로)는 19일 이항로 군수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상황실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4분기 협의회는 화랑훈련 유공자 시상, 2018년 통합방위 추진결과 및 군부대 통합방위 추진상황 보고, 2019년 진안군 민방위 실시계획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랑훈련 유공자는 제7733부대 1대대 소속 최원우 진안지역대장과 김정권 용담·안천·주천면대장, 한운섭 마령·성수면대장이다. 올해 화랑훈련 시 사전 치밀한 계획 수립과 민관군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진안군)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올해 통합방위 추진결과 총무·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중점관리지원 확인의 날 행사,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비군 육성 지원 등 2018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9년 진안군 민방위 실시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항 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안보를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에게 감사하다. 내년에도 안보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공청사 시설개선 추진

8억3000만원 들여

진안군은 올해 8억3000만원을 들여 공공청사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했다. 본청사를 비롯한 의회청사, 용담·동향·상전·백운·성수·마령·정천면사무소가 대상이다. 이 중 본청사와 동향면 청사는 각각 1984년, 1985년 준공되어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노후 건물이었다. 본 청사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차호 교체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당직실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의회청사는 외벽보수를 통해 그간 아끼던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해

결했다. 특히 동향면사무소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용담면을 비롯한 기타 면 청사는 석면텍스 철거와 옥상 보수, 바닥수 보수 등으로 근무자를 비롯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정천면사무소 하수관로 보수와 본청사 가스공급시설 교체 등 연말 안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노후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만큼 직원과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 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힐링 프로그램은 대민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민원행정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1일 차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과 실과 원소, 읍면 민원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가해 회복미술관 다목적 영상관에서 스트레스 자기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대 강원재 교수가 진행하는 직장인을 위한 만성피로 클리닉을 통해 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공무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벗어나 고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편해지는 느낌"이라며 "대민업무는 게 담당자의 기본, 태도, 상황까지도 모두 민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리에서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자기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원서 설천면 지역협의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설천면, 상생 및 협력강화 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설천면 사무소 등과 함께 태권도원에서 '설천면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는 박노신 재단 사업본부장과 김상선 설천면장, 윤정훈·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양운모 설천중고등학교 교장, 이강진 이장협의회장, 육상우 설천노인회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천면 지역협의회'를 갖고 '2018년 설천면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와 '2019년 계획 공유'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재단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설천면 지역협의회'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태권도원에 대한 상세 소개와 재단·설천면 간의 협력·상생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기도 했다. 박노신 재단 사업본부장은 "태권도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설천면 지역협의회 회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진안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위·수탁협약

3년간 재수탁... 경제적 자립·여성단체 육성지원 등

진안군은 19일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점순)와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 일자리 지원과 능력개발, 경제적 자립,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관내 여성들의 인력개발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이날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재선정됐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